

# 텅 비워진 자리에 지혜 솟아

대회'를 열게 됩니다. 해방이후에 최초로 한국불교가 반정부 시위를 한 겁니다. 10.27법난규탄대회위원장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구치소 생활도 했습니다. 그 후 개운사 주지를 잠깐 하게 되고 선방에 다니다가,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세월을 지내다가 94년 종단개혁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봉은사 주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봉은사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이고 기득권을 지키고 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삼 년을 살게 됩니다. 봉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절입니다. 돈 많은 절이고, 부자 절이고 또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분규가 있었던 절이고 해서, 참 문제를 많이 안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 내가 한 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1000일 기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0일을 시작하니까, 신도들은 '저, 새로운 것들은 얼마나 돈을 해먹고 나갈라고 저러는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100일만 하면 밥 산다고 서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들의 기대, 바램. '어, 정말 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바뀌는 거, 신도들이 스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심과 또 정말 잘 하신다, 그런 기대,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1000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게 한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고, 400일이 지나고, 500일째 되는 날 기념법회를 할 때, 법상에서 내려와서 저희 신도님들한테 제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도님들이 호법신장 같이 나를 지켜주고, 바라보고, 항상 눈빛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내가 빼먹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게으를 수가 있는가? 제가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법당에 가는 시간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사시에 한 번 빼먹은 거 말고는, 빠진 적도 없고, 늦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2999번을 딱, 시간 5분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르침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禪)을 해서 무엇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 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어



법회에 앞서 전통차를 맛보며 법담을 나누는 스님과 불자들.

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번뇌고, 아는 것으로부터 분별심이 나왔고, 아는 것으로부터 간택심이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전부 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제방에서 간혹 화선이 잘 되니, 잘못 되니 하면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데, 간화(看話)가 별거 아닙니다. '나는 뭘까?' 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지 스님이 왜? 무(無)라고 했을까?' 그걸 물어오 됩니다. 삼라만상 전체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꽃은 왜 붉은지, 버들은 왜 푸른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계약된 것, 앓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사상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허두 하나, '이 뭘고?' 하고 묻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빠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빠지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야 합니다. 모든 앓을 다 내려놓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하실 때 보면 힘이 완전히 빠져야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우리 몸에서 힘 빼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힘을 빼야만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행을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자비는 지혜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로운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수행하고, 나를 향해 끝없이 묻는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꾸짖어야 하고, 비굴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빛고를 광주에 온 국민들이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주, 무등의 품속에서 환한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려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함부로 하고, 많이 배웠다 해서 남을 함부로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말 평화로운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러한 햇볕을 광주가 선봉에 들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69. 만해 스님의 제자 김관호 법사

김관호 법사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적 아들이다. 만해 스님의 제자로 그동안 논문과 육성증언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해 스님의 행장을 알리었다. 80년대 초부터 전국 각 대학을 돌며 만해사상을 강연하면서 한 편의 강연비도 받지 않아 "만해스님과 같은 분"이라는 존경을 받기도 했다.

김관호 법사님은 앉으나 서나 만해 스님 이야기, 특만 나면 탑골공원이나 심우장을 찾았다. "보라구. 그 분의 집이 어찌하여 이렇게 복향을 향하고 있는지. 첫째,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였고, 둘째는 남북통일의 갈망에서였어."

방랑하고 계신 용운 스님도 있는 데!"

피식 웃으면서 아래 국수집에 들어가 국수 가락 같은 길고 긴 이야기를 또 늘어놓는다.

"만해 스님은 1908년 전국 사찰 50인중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에 원종(圓宗)을 만들고, 일본에 들어가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연관을 가지고 최린 선생과 함께 귀국한다. 1909년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하고, 1910년 한일합방



다 허물어져 가는 심우장 마루에 앉아 또 그 옛날 그 말씀을 꺼내신다.

"만해 스님은 1879년 8월 중

한 그릇의 콩밥도 먹지 못하고 옆에서 굶고 있는데, 어떤 부유한 독립지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감옥에서 구걸하자 6, 7개월 이상을 하루에 한 끼씩만 드시고 나머지 밥을 그들에게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다 한다. 1944년 심우장을 짓고 이사오니, 이 집이 몇 년이여?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집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배고픔을 못 참고 국수 먹자고 하는 거여. 자 가자고."

"어디로 갑니까?"

"파고다공원으로 가자이." 파고다공원에 오면 한용운 스님 비석 앞에 서서 합장한 뒤, "이 비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지 알아? 1967년 경봉 스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시비는 백담사에 세워졌는데, 1962년 정부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니 이 또한 좋아하지 아니했을까.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그리 장하다고 훈장을 받는단 말

### 글·육성증언 통해 만해 행장 알려... 국가·사회·민족 위해 살아

남 흉상에서 태어났거든.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6세에 동학혁명을 계기로 형과 부모가 관가에 끌려가 피살된 것을 보고, 96년 동학군 잔여세력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하다가 설악산 5세암에 들어가 피신하였다. 이때 민중들의 고통을 실감하고 이렇게 총부리만 겨누고 뛰어나 다니다 해서 나라가 독립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9세에 백담사 연곡 스님께 득도(得度)하였다. 여기서 학암 스님께 <기신론> <능가경> <원각경>을 배우고, 유점사 인학 스님께 <화엄경>을 배운 뒤 직접 5세암 선방에 들어가 선수행을 하였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에서 수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다시 석왕사 선방에 이르러 참선하였다."

"법사님, 오후 2시가 되었는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요. 시베리아에서

(일제강점기) 피차 독립군 군관 학교에 나아가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을 맞아 파킨슨병 환자처럼 고개를 떠는 증세가 생겼다. 그래서 양양 낙산사에 가서 기도하고 품속에서 풀을 한 통을 얻어드신 뒤 말은 잘하는 언변을 얻어 왜건이 잡으러 오면, '내 강연이 끝난 뒤 나를 체포하라' 해서 놓아두면 얼마나 말을 잘 하던지 잡는 것까지도 잊어버려 3·1운동까지는 잡아가지 아니했다고 한다."

만해 스님은 1913년 <불교대전>을 편찬해 근원불교사상을 전국에 포교하고, 1919년 3·1 독립선언문을 수정 <조선 독립의 서>를 집필 한 뒤 3년 징역을 받고, 22년 출옥한 뒤 다시 조선 불교청년회 총재로 취임, 1925년 <님의 침묵>을 출간해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만해 스님이) 서대문형무소에 계실 때 이야기다. 남은 한 끼

인가' 하고 말아야." 이렇게 김관호 법사님은 자기 말은 한 마디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용운 스님 이야기를 하여, 누구나 보면 "한용운 선생 오신다"하고 반겼다. 서울에서 태어나 풍어일보 논설위원을 지내고, 불교거사협회 발기자가 되었으나, 절대 상(相)을 내지 않고 오직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울분 속에서 한 세상을 사신 분이다.

"대쪽보다 곧고 얼음속 보다 맑고 깨우친 분/ 법과 질서를 위해서는 잠시도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 천재 손자를 두어 열다섯 살에 미국 대학에 입학시키고/ 이전 우리도 세계의 두뇌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시던 분/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심우장 자랑을 하고 '님의 침묵'을 노래하십니까."

김관호 법사님은 1998년 10월 12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단기출가 참선안거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개산 1주년

단기출가 100일 2009. 11. 26 - 2010. 3. 5 (1차)  
단기출가 50일 2009. 12. 19 - 2010. 2. 6 (2차)

지혜란?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 ▶ 대상 : 일반인(20 ~ 70세)
- ▶ 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www.hwalin.net](http://www.hwalin.net)
- ▶ 전화 : 1644-5266 / 070-7519-9929



###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안성맞춤의 고택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 최상의 지혜, 참선으로 하는 단기출가참선안거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행복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참선체험

### 활인선원의 다른 과정

- **행복참선학교** (겨울 100일 - 주말선회)
  - 2009. 11. 26 ~ 2010. 3. 5 동안거 기간
  - 주말(토) 10:30 ~ 16:00 2주, 4주(일) 13:00까지
- **삼매체험 참선단식 수련회** (원명선원과 병행)
  - 2009. 12월 말 ~ 1월 말
  - 대상 : 일반인 65세까지 청소년 (고교생, 보호자동행)

일구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 불공보다 뛰어나다